

통합실조증 투병기의 텍스트 마이닝과 전기 분석

후루카와 나츠코

『마음이 아프다란? : 정신병 체험자로부터』

그 구조의 텍스트 마이닝

Experience of people with mental illness:

A text mining analysis of an autobiographical illness narrative book

Takehiko Ito¹, Tomoe Kodaira², Yohei Ohtaka³ 2010 Annual Meeting of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sychology toward Happiness”

한국心理学会 August 19-21, 2010 in Seoul University, Korea

【들어가기】

- 바커 & 부케년바커 (2010) : 타이달 모델
 - 이토·小平·井上·穴澤 (2010) : 浦河베텔의 집의 원조론이나 타이달 모델에서는 당사자의 내레이티브에 주목.
 - 小平·이토 (2010: 이전 발표) : 투병기는 간호학 교육 및 간호사의 지식창조에 그 의의가 크다.
「내레이티브 교재」로서의 투병기의 유용성을 강조.
- ▶ 본 연구에서는 통합실조증 당사자의 대표적인 투병기로 그 체험과 내레이티브의 구조를 밝히고 정신보건간호학과 간호원조에 대한 시사를 얻고자 한다.



과학과 내레이티브: 관해(寛解)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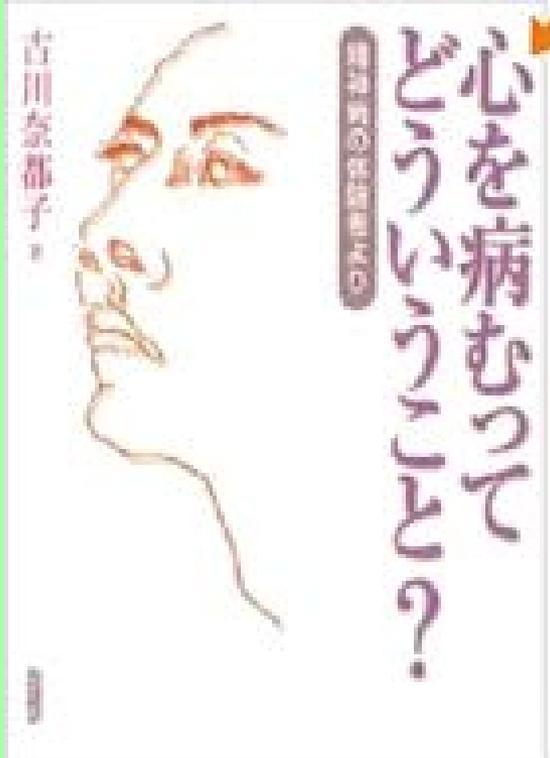


- 「관해remission」→일본 국립국어연구소의 시민설문조사:환자가 알기 힘든 의사 사용 용어 100개 중의 하나(朝日新聞朝刊2008年7月8日)
- 정신의학사전(弘文堂)(論理科学的様式)
양성증상이 소실하여 안정적인 병상이 보인다면 ‘관해’라고 한다.
- 古川奈都子(2001)(物語り様式)



정신병에서는 완전히 치유된 상태도 아니고, 발병 전으로 돌아 가는 것도 아니지만 발병 전과는 전혀 다른 상태로 겨우 사회생활을 수행할 수 있는 상태가 될 때 ‘관해’라고 한다. ‘관해’했다란 스스로가 크게 성장하다, 혹은 비약했다란 것을 가리킨다. 古川는 이 난해한 ‘관해’란 용어를 투병체험을 근거로 하여 선명하게 기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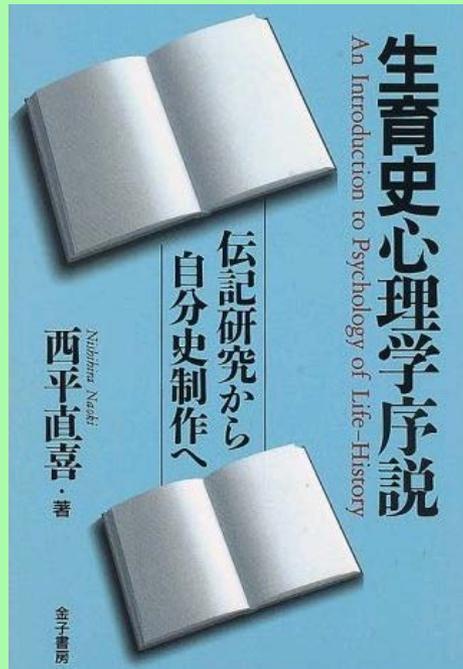
【연구방법】



- 【연구대상】古川奈都子(2001)『마음이 아프다란?』BUDOU社
- 저자는 기업교육연구회(2008)의 편견저감교육도 협력하는 저명한 당사자이다.
- 【연구방법】대상인 투병기의 내용이나 의미의 질적 분석(개별분석)을 행함과 동시에,
- 텍스트의 양적 분석을, Text Mining Studio Ver.3.1을 사용하여, 단어빈도분석으로 출현횟수, 대응분석으로 각 장과 빈출 단어와의 관계, 특징어 분석으로 각 장에 특징적인 단어를 추출하여 투병기의 구조와 특질을 질적 및 양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목적】

- 투병기는 자전이며 전기의 일종인 까닭에, 전기분석법(西平, 1996) 중의 개별분석과 텍스트 마이닝에 의해 투병기의 구조를 밝힌다.
- 그리고, 정신간호로서의 간호교육이나 졸업 후 교육, 또는 자기 연마의 교재로서의 투병기의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西平直喜, 1996, 生育史心理学序説: 伝記研究から自分史制作へ, 金子書房

【결과】①투병기의 내용 요약

- 글머리 「마음의 병을 지닌 사람에 대해서 이해해주세요」; 이 책의 집필동기가 정신분열병(이하, 통합실조증)을 앓는 사람에 대해 이해해줄 것을 이야기한다.
- 제1장 「나로부터 당신에게」; 정신장애란 비하될 것도, 특별한 것도 아님을 「관해」를 키워드로 하여 이야기한다.
- 제2장 「병이 걸려 오하려 다행」; 저자 자신의 생육력과 발병경험 그리고 현재까지의 경과가 소개된다.
- 제3장 「이렇게 대해준다면」; 자신의 경험을 기반으로 하여 통합실조증을 앓는 사람들의 연약함, 어려움의 구체적인 예와 그것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이야기한다.
- 제4장 「『당신』과『나』의 관계로」; 가족이나 주위의 사람들, 나아가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통합실조증인 사람들을 생각하고 그 관계를 맺어 가야 하는가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한다.
- 맺는 글 「모두 함께」;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권 존중의 중요성을 이야기한다.
- 후기; 이 책을 쓰게 된 경과와 더불어 집필이 의미있었다는 감상을 이야기한다.

【결과】② 단어 빈도 분석

	単語	品詞	あとがき	おわりに	はじめに	第1	第2	第3	第4	頻度
1	人	名詞	10	7	15	75	57	126	107	397
2	自分	名詞	13	6	1	35	51	125	68	299
3	本人	名詞	0	0	1	22	0	98	31	152
4	病氣	名詞	7	6	0	31	11	31	41	127
5	言う	動詞	0	0	2	9	26	45	19	101
6	今	名詞	0	3	2	15	28	11	15	74
7	家族	名詞	6	0	0	4	12	19	31	72
8	良い	形容詞	1	0	1	6	18	13	26	65
9	持つ	動詞	4	3	2	10	10	11	23	63
10	心	名詞	6	0	3	12	9	14	18	62
11	思う	動詞	3	5	1	9	11	16	16	61
12	言葉	名詞	0	0	0	14	10	15	21	60
13	よく	副詞	0	0	0	15	7	23	12	57
14	話	名詞	0	0	0	7	5	35	8	55
15	まわり	名詞	0	0	0	11	8	22	13	54
16	病者	名詞	1	0	0	7	0	20	24	52
17	いる	動詞	1	1	2	8	6	22	11	51
18	生きる	動詞	4	2	0	10	8	1	23	48
19	考える	動詞	3	0	1	6	3	18	14	45
20	人間	名詞	2	1	2	13	14	5	8	45

【결과】④각 장의 특징 단어

章-あとがき	指標値	章-おわりに	指標値	章-(はじめに)	指標	章-第1	指標値	章-第2	指標値	章-第3	指標値	章-第4	指標値	
1	本	58.744	思う	54.584	人	85.532	人	56.848	今	33.916	本人	98.625	能力	46.388
2	原稿	48.683	病気	47.475	病	59.612	子	38.076	評価	20.866	自分	47.62	がんばる	30.534
3	読む	48.48	分裂病	42.165	優しい	34.542	姿	37.176	母	20.325	聞く	34.933	家族	28.711
4	書く	40.71	そう	40.472	仲間	24.031	病気	37.049	町	20.233	話	32.773	生きる	26.128
5	希望	24.037	体験	31.949	人たち	23.57	障害	29.85	学校	19.739	言う	31.395	持つ	25.834
6	方々	23.428	違う	25.118	心	19.184	合わせる	26.387	折り紙	17.715	妄想	26.39	患者	24.425
7	病	22.414	変わる	24.893	ペース	17.329	いつ	25.714	書く	16.866	約束	23.612	良い	23.603
8	与える	20.791	もう	24.667	まじめ	16.867	子ども	25.31	嫌う	16.773	起こる	21.248	病気	18.608
9	人達	19.717	気持ち	21.846	やる	16.406	精神病	23.196	人間	16.556	わかる	20.018	責任	15.795
10	心	18.214	生きる	20.943	かかる	15.944	人間	20.861	友人	16.464	いる	18.629	娘	15.326
11	家族	16.185	自分	19.994	知る	15.482	よく	20.097	K	16.186	なぜ	18.419	障害者	14.562
12	市毛さん	14.787	持つ	18.686	自分自身	14.559	言葉	18.075	行く	15.877	身体	18.419	言葉	13.973
13	共感	13.976	今	18.573	体験	13.52	できる	17.716	話す	15.831	性格	16.616	社会	13.446
14	体験	13.427	それぞれ	17.723	人間	12.02	理解	16.588	悪口	15.738	幻聴	15.845	人	12.431
15	持つ	10.85	人	17.684	いる	10.404	大人	16.543	少し	13.854	考える	14.462	決して	12.389
16	分裂病	10.527	乗り越える	17.611	思う	9.134	治る	16.229	ただた	13.715	辛い	13.787	思う	12.093
17	ほどく	9.858	きっと	17.272	持つ	9.134	自分自	15.375	来る	13.669	訴える	12.449	援助	11.92
18	ヒント	9.858	一人	16.031	今	9.019	以前	15.284	結婚	13.174	思い	12.092	与える	11.097
19	出版社	9.858	わかる	10.84	お人好し	8.664	寛解	14.834	言う	12.355	必要	12.092	規則	10.217
20	付き合い	9.858	あな	8.862	ハード	8.664	かかる	14.475	兄	12.14	欲しい	11.06	偏差値	9.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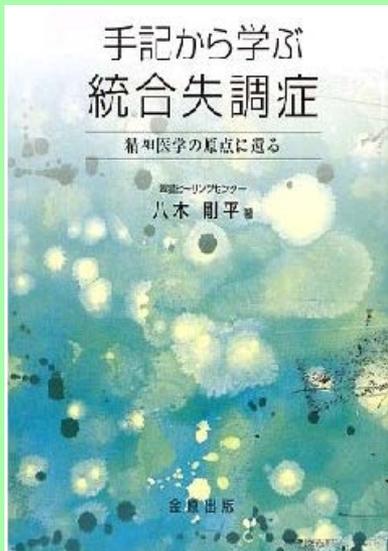
- ▶ 글머리; 「친절하다」「동료」「사람들」등, 같은 병을 앓는 사람들에 대해 이해를 갈구하는 표현.
- ▶ 제1장; 「아이」「병」「장해」「관해」등, 과거를 되돌아 보고 현재를 긍정하고 있다.
- ▶ 제2장; 「어머니」「마을」「학교」「친구」「결혼」등, 생육력에 관한 단어.
- ▶ 제3장; 「망상」「몸」「환청」등, 타인은 이해하기 어려운 체험에 대한 단어.
- ▶ 제4장; 「능력」「가족」「장해자」「편차치」등,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메시지의 표현.
- ▶ 맺음글; 「병」「분열병」「체험」등, 병과 공생하는 자신에 대한 표현.

【고찰】①내레이티브 교재로서의 유효성

- 이 책은 자신의 고통에 대한 기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투병 경과를 되돌아 보면서 병과 함께 살아가는 자기를 긍정함과 동시에 비당사자인 독자에게 당사자의 고통에 대한 이해를 구하는 메시지로 가득하다.
- 이러한 기술의 내용은, 간호학생의 교육 및 간호사의 자기연마에 있어서도 중요한 내레이티브 교재 **narrative educational materials** (小平·伊藤, 2009)로서 가치가 있다.
- 小平朋江·伊藤武彦 2009. 내레이티브 교재로서의 투병기: 다양한 미디어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자의 이야기의 교육적 활용, 마크로·카운셀링 연구, 8, 50-67.

【고찰】②투병기의 의의

=「살아가기의 고달픔」에 대한 간접적
체험



- 八木(2009)는 정신병리학의 기본은 당사자의 이야기에서 출발해야만 하며, 투병기의 정신의학에 있어서의 근원적인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 투병기는 당사자 뿐만 아니라 환경측의 문제도 포함한 「살아가기의 고달픔生きにくさ」의 체험(武井,2005; 2009)에 대한 실례가 풍부하다는 점이 개별분석을 통해 밝혀졌다.



【고찰】③ 투병기의 위상

小平朋江·伊藤武彦 2009 내레이티브교재로서의 투병기: 다양한 미디어에 있어서의 정신장애자의 이야기의 교육적 활용 마크로·카운셀링 연구, 8, 50-67.에서

- 정신간호에 있어서,
- 임상장면에서의 직접적 내레이티브 체험과 함께,
- 투병기를 읽음으로써 얻게 되는 간호사 입장에서의 간접적 내레이티브 체험이 갖는 의미가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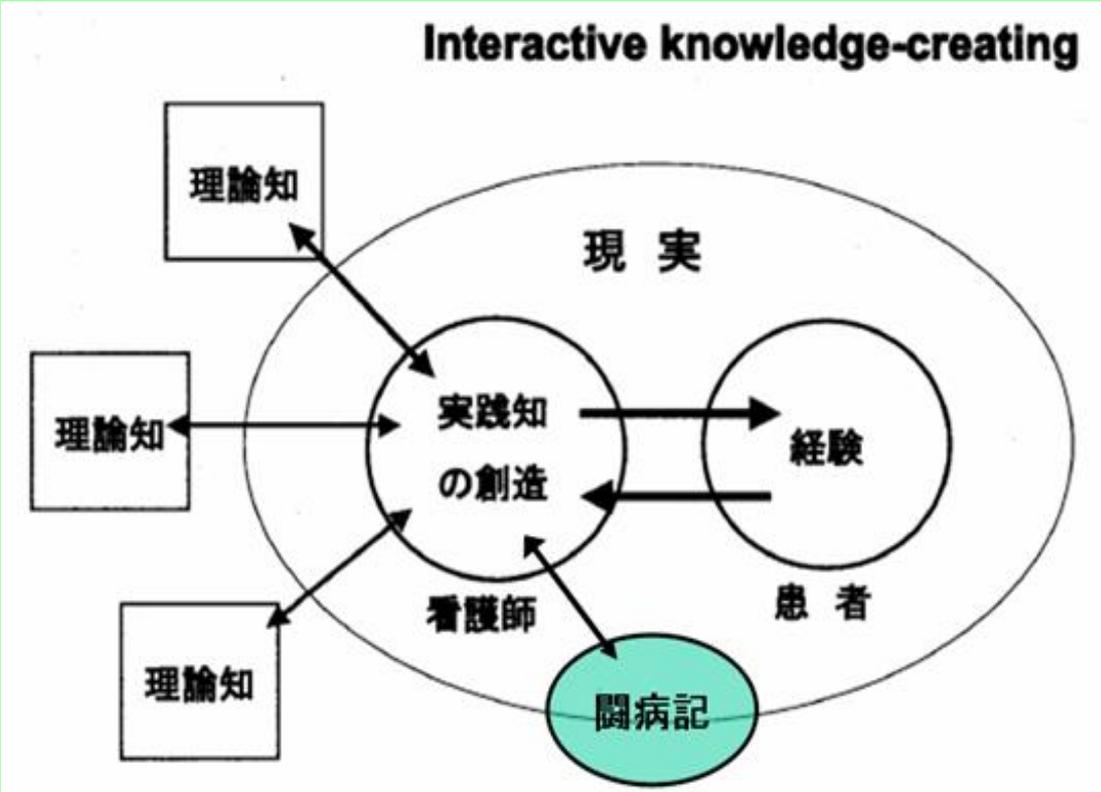


그림2. 경험을 지(知)로 변환하는 '지식구조' (中山,2004)에 대한 투병기의 자리매김

【참고 문헌】

- いたうたけひこ・小平朋江・井上孝代・穴澤海彦 2010 タイダルモデルと浦河べてるの家:英国と北海道から生まれた精神障害者のためのコミュニティ的人間関係援助 和光大学現代人間学部紀要, 3, 197-207.
- 小平朋江・伊藤武彦 2008 精神障害の闘病記:多様な物語りの意義 マクロ・カウンセリング研究, 7, 48-63.
- 小平朋江・伊藤武彦 2009 ナラティブ教材とはなにか:医学・看護学教育における「語り」の意義 マクロ・カウンセリング研究, 8, 50-67.
- 中山 洋子 2004 看護の“知”の水脈を探る 聖路加看護学会誌 8(1), 44-49.
- 西平直喜 1996 生育史心理学序説:伝記研究から自分史制作へ 金子書房
- 武井麻子 2005 精神看護学ノート(第2版) 医学書院
- 武井麻子 2009 この本で伝えたいこと 武井麻子(編) 系統看護学講座 専門分野II 精神看護学1 医学書院(pp.1-14)
- 八木剛平 2009 手記から学ぶ統合失調症:精神医学の原点に還る 金原出版